

중등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usical and Teaching Confidence Level of Secondary Music Teachers on the Resilience of Teachers

박하나* · 최진호**

Ha Na Park · Jin Ho Cho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을 대상(n=242)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교육부 통계 서비스에서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순무선표집을 실시하여 360개의 학교를 선정하였고,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교사회복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사의 교수능력과 음악적 능력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3$). 둘째, 음악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때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2.27$, $p>0.5$). 셋째, 음악교사의 교수능력과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 239) = 47.76$, $p<.01$).

주제어: 음악교육, 교수능력, 음악적 능력, 교사회복탄력성, 중등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eachers' musical and teaching confidence level on their resilience, targeting music teachers (n=242) in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imple random sampling of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to select 360 schools based on the 2022 statistics serv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mong the teachers working at the 360 schools, confidence in musical ability and teaching ability and teacher resilience were measured for music teacher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music teachers' teaching and musical confidence level ($r=.63$). Second, it was found that resilience increased when music teachers had a strong identity as educators ($t=-2.27$, $p>0.5$). Third, it was found that music teachers' 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and musical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s' resilience ($F (2, 239) = 47.76$, $p<.01$).

Key words: music education, teaching competence, musical competence, teacher resilience, secondary education

* First author, E-mail: inmy-kingdom@hanmail.net

Teacher, Banghwa Middle School, 9, Gaehwadong-ro 27-gil, Gangseo-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c0028@cau.ac.kr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4712 Seodongdaero, Daedeok, Anseong, Gyeonggi, Korea

I. 서론

현재 한국의 교직 환경은 교사가 단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교직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2022년 7월 25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행동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22).” 이와 같은 교권의 추락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문제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여, 결국,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Son, 2020).

예를 들면, 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은 경력 20년 이상의 명예퇴직 교사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 경력 20년 미만의 교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직 등 기타’로 분류되는데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교사의 교직 이탈 가능성이 30~40대의 교직 이탈 가능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20).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도, 결국 교사 스스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처방이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외적인 지원과 방법보다는 교사 스스로의 내적인 치유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 그리고 심리적 반응은 교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욕설해도 금방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정상적인 심리상태로 돌아오는가 하면, 또 다른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외부의 심리적 충격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회복탄력성’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대처하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역경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능력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Tugade et al., 2004). 이러한 점에서 Brunetti(2006)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도전적인 조건과 반복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자신의 교수 관행에 대한 헌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질이라고 하였다.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교직수행능력과 교직전문성이다(Beltman et al., 2011; Bobek, 2002). 음악교사의 교직수행능력과 교직 전문성은 교사로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능력과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음악가적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가르치는 뛰어난 교수능력은 교사로서 직업적 자신감을 불어넣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ltman et al., 2011; Bobek, 2002). 또한, 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은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데, 음악에 매료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여 교사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McPherson & Renwick, 2001),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훌륭한 음악가이자 교사로서 인식하게 하여 직업에 대한 혼신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in et al., 2012).

정리하면,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은 각각 뚜렷한 특징을 지니는 서로 다른 유형인 동시에,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으로 음악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Nielsen & Westby, 201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을 대상($n=242$)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중등음악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교사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등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교사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 및 교수능력

음악교사로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은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유능한 음악교사는 이러한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교사는 이 두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 두 능력의 조화와 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음악적 능력에 자신감을 가진 음악교사일수록 자신을 음악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될수록 자신을 일반 교사로 인식하기도 한다(Ballantyne, 2007).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음악

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음악가로서의 교사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음악가는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으로(Bennett, 2008), 어린 시절부터 특정 장르의 연주 능력과 관련된 훈련을 받아 온, 고도로 전문화된 개인을 지칭한다(Brodsky, 2006). 다시 말하면, 음악가는 어린 시절부터 전문적인 음악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어 훈련하기 시작하여 전문 음악인으로서 은퇴하는 시점까지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평생의 과정을 통해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고도의 기술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이라도, 어린 시절의 직업적 훈련이 필요 없는 외과 의사나 젊은 시절 은퇴하는 운동선수와는 달리, 음악가라는 직업은 자신의 특정 예술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Bennett, 2008).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원동력은 역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다. 음악에 매료된다는 것은 연습이나 학습의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여 즐거운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McPherson & Renwick, 2001). 실제로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Jung & Choi, 2013; 2014; Choo & Choi, 2018), 연습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Hallam, 2011).

한편, 음악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음악적 능력은 청각적 기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분별하기 위해 실시된 초기의 음악적 능력 검사는 간단한 청각 검사로부터 시작되었다(Bentley, 1966; Seashore, 1915). 이후 음악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청각적 기술을 넘어서 음악을 읽고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Gordon, 1995). 다시 말하면, 연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음악적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음악적 능력은 음악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소 즉, 관객과 소통하거나 다른 연주자와 음악적 감정을 소통하는 것에서부터(Hallam, 2010),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연주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듣고, 평가하고, 감상하며, 음악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 왔다(Kim et al., 2022).

다음으로 교육자로서의 음악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교사는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Shin & Lee, 2016), 교육 공무원법 제1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봉사하는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1). 또한, 교사는 자신의 과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과목별 전문가(a subject matter expert)의 특성과 그 전문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전문가(pedagogical expert)의 특성을 동시에

에 가지고 있다(Beijaard et al., 2000). 정리하면, 음악교사는 전문적인 음악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자라는 것이다(Brewer, 2009).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을 포함한 전문적 과정이며, 학생과 음악교사 간의 수백 가지의 개인적인 상호 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Juchniewkz, 2010). 이러한 교수능력은 단순히 교수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행위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포함한다(Choi, 2012; Kim et al., 2022). 특히, 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수능력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가이자 교사로서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을 갖추는 것은 음악교사만의 전문적인 역할인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음악교사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직업적 보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Carrillo et al., 2015; Fokkens-Bruinsma & Canrinus, 2012).

2. 회복탄력성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교사는 강도 높은 업무량과 과도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광범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다룬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감정적 대응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탄력성이라 한다(Gu & Li, 2013; Pretsch et al., 2012; Tugade et al., 2004).

회복탄력성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며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힌 개인이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발달해 나가는 상대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개념이다. 즉,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와 부정적인 경험 등에 대한 유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Tugade et al., 2004). 특히 교직에 대한 역경과 도전적인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충 역할을 하게 되며 (Pretsch et al., 2012), 적응이나 발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asten, 2001).

교사에게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탄력성이 교사 스스로 자신감과 유능함을 느끼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에 능숙하게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에 대한 헌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Day, 2008; Howard & Johnson, 2004). 또한,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Oswald 외 연구진(2003)은 아동의 회복력에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설명하면, 회복력이 있는 교사는 아이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성공을

지원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Oswald et al.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nsfield 외 연구진(2016)은 문헌 분석을 통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51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자원에서 확인된 12가지 요인은 동기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내재적 동기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개인적 자원이었다. 특히 소명의식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 교사 소진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위해서는 소명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Mansfield et al., 2016).

둘째, 맥락 자원에서 확인된 14가지 주요 요인은 관계의 중요성에 있다. 관계에 대한 강화는 특히 초임 교사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와 학교 지도자, 교사와 동료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 하며, 특히 교사와 학교 지도자의 관계는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맥락적 자원이었다. 또한,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학교 구성원과 학교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역동적인 과정 또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별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학교 분위기와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Kangas-Dick & O'Shaughnessy, 2020). 이러한 교사의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 지원 또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의 개선된 결과의 간접적인 수혜자로서 학교 환경에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Kangas-Dick & O'Shaughnessy, 2020).

셋째, 전략 자원에서 확인된 15가지 요인은 문제해결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전략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한다. 전문적인 학습과 목표 설정, 성찰을 포함하는 경우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도 등장하는데, 유머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고 정서적인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Mansfield et al., 2016).

넷째, 나머지 10가지 회복탄력성 결과는 혼신, 직무 만족, 주도성, 참여 및 소속감과 같은 동기부여의 결과이다. 혼신은 중요한 개인적 자원인 동시에 교사로서의 경험의 결과로, 자신의 전문성의 가치를 존중받고 지원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발현된다. 또한 열정, 기쁨과 같은 요소는 교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다(Mansfield et al., 2016).

한편, Reivich와 Shatté(2003)는 회복탄력성을 감정조절력(emotion regulation), 충동통제력(impulse control), 낙관성(optimism), 원인분석력(causal analysis), 공감능력(empath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적극적 도전성(reaching out)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7개 요인을 바탕으

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지수(RQ) 56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Kim(2019)은 이러한 Reivich와 Shatté(2003)의 회복탄력성 지수(RQ) 56문항을 번안 및 수정 보완하여 5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을 개발하였으며, Shin 외 연구진(2009)은 청소년용 27문항(YKRQ-27)을 개발하였다. KRQ-53은 크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Kim, 2019), YKRQ-27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의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Shin et al., 200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의 자신감이 음악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을 대상($n=242$)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먼저 2022년도 교육통계서비스(KESS) 유·초·중·고등학교 급별 개황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3,258개 중학교와 2,373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대한민국 현직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층화군집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모집단인 5,631개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번부터 5,631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단순무선표집을 실시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360개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미리 인쇄된 조사의 목적, 중요성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 설문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동의 면제 영역 2(IRB No. 1041078-203320-HR-231)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로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설문에 접속하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설문 참여 완료 후 온라인 접속을 종료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 종료를 대신하였다. 그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7부이며 무성의하게 응답한 검사지 25부(미응답, 불성실응답, 중복참여 등)를 제외하고 총 242명의 중·고등학교 음악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42명 중 여교사가 191명(78.9%), 남교사가 51명(21.1%)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02명(4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40대가 74명(30.6%), 50대

이상이 39명(16.1%), 20대가 27명(11.2%)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경력은 1~5년이 71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이 61명(25.2%), 11~15년이 43명(17.8%), 21년 이상이 43명(17.8%), 16~20년이 24명(9.9%)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총 242명의 교사 중,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29명(53.3%),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13명(46.7%)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교설립유형으로는 국·공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52명(62.8%), 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90명(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규모로는 42학급 이하가 139명(57.4%), 18학급 이하가 98명(4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3학급 이상이 5명(2.1%)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소재지로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20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시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84명(34.7), 군(읍, 면)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38명(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보직유무로는 평교사가 185명(76.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직교사가 57명(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담임여부로는 비담임이 131명(54.1%), 담임이 111명(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총 5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24문항으로 각각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교사들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27문항으로 Reivich와 Shatté(2003)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RQ) 56문항을 Shin 외 연구진(2009)이 한국의 현실에 맞춰 27문항으로 수정·보완한 YKRQ-27을 사용하였다. YKRQ-27은 회복탄력성을 9가지 유형(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으로 분류하고, 유형 별로 각각 3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음악교사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회복탄력성 문항들은 모두 5단계의 Likert 척도 [매우 아니다Strongly Disagree(1), 아니다Disagree(2), 보통이다Neutral(3), 그렇다Agree(4), 매우 그렇다Strongly Agree(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교사들의 음악적 능력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95, 교수능력은 .92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으며, 검사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4로 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참가자들의 개인적 배경인 나이, 경력, 학교유형, 학교규모,

보직유무, 담임유무,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음악가 또는 교육자)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Type	Item	Survey content	Cronbach's α
Music competence	1	Performance skills	.95
	2	Accompaniment skills	
	3	Professional music training	
	4	Knowledge of music history	
	5	Knowledge of music analysis	
	6	Can play various instruments	
	7	Confidence in my major	
	8	Commitment to practice and training	
	9	Active in performance activities	
	10	Pride in my major	
	11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ism	
	12	Recognition myself as a valuable musicians	
Teaching competence	1	Designing music classes	.92
	2	Implementation skill of a class	
	3	Ability of music assessment	
	4	Knowledge of music curriculum	
	5	The method of teaching music	
	6	Knowledge of music and evaluation	
	7	A sense of duty as a music teacher	
	8	The worth of being a music teacher	
	9	Passion as a music teacher	
	10	Pride in one's career	
	11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 teaching job	
	12	Recognition myself of a valuable teacher	
YKRQ-27	1 ~ 27	Resilience of music teacher items	.89
	51	Total	.94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24.0

(SPSS 2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의 문항 중, 중등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51개의 문항은 집단 간 비교를 시행하였기에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인 개인적 배경에 관한 7항목들은 빈도수를 사용하여 백분율과 집단별 평균으로 환산하여 보고하였다.

IV. 연구결과

다음의 <Table 2>는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사회복탄력성 간의 적률상관분석 결과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사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적 능력과 교사능력 간 상관계수가 .629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 간 상관계수는 .597, 그리고 음악적 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간 상관계수는 .492로 모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usical competence, teaching competence, resilience of teachers

	Musical competence	Teaching competence	Resilience of teachers
Musical competence	1		
Teaching competence	.629**	1	
Resilience of teachers	.492**	.597**	1

**p<0.01

다음의 <Table 3>은 음악교사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음악가 또는 교육자)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음악가로 인식하는 교사들의 평균은 105.20, 표준편차는 11.24이며, 교육가로 인식하는 교사들의 평균은 108.87, 표준편차는 11.25로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의 차이에 대한 t통계 값은 -2.27, 유의확률은 .024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신을 음악가로 인식하는 그룹과 교사로 인식하는 그룹 간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musical competence and teaching competence according to identity

Factor	Mean(SD)				t-value	sig.
	Musician	N	Teacher	N		
Identity	105.20(11.24)	71	108.87(11.25)	171	-2.27	.024*

*p<0.05

다음의 <Table 4>는 음악교사들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높음, 중간, 낮음)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101.72에서 117.04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음악교사들의 교수능력 자신감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은 자신감 높음(M=117.04; SD=10.2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감 중간(M=111.19; SD=8.89), 자신감 낮음(M=101.72; SD=10.22)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High	Middle	Low	Total
Mean	117.04	111.19	101.72	107.79
SD	10.27	8.89	10.22	11.56
N	47	79	116	242

다음의 <Table 5>는 음악교사들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높음, 중간, 낮음)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각 집단별 평균차이의 F값이 47.76,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 수준 .01에서 각 학년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2, 239) = 47.76, p < .01$).

<Table 5> A one-way ANOVA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SS	df	Mean SS	F	Sig.
Between groups	9205.01	2	4602.51	47.76**	.000
Within groups	23031.23	239	96.37		
N	32236.25	241			

**p<0.00

본 연구는 또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사후검사(Post Hoc 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비교분석은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음의 <Table 6>은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 따른 교사들의 회복탄력성 점수의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6> A Scheffe (Post Hoc Test)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teaching ability

Level of confidence (teaching)	Mean difference	Stad. Error	Sig.
High vs middle	-5.85	1.80	.006
High vs low	-15.32	1.70	.000
Middle vs low	-9.47	1.43	.000

검사 결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은 그룹과 중간그룹의 평균 차는 -5.85이고 유의확률은 .006이며, 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평균 차는 -15.32, 유의확률은 .000이고, 점수가 중간인 그룹과 낮은 그룹의 평균 차는 -9.4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0에서 모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Table 7>은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높음, 중간, 낮음)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103.20에서 120.20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은 자신감 높음($M=120.20$; $SD=12.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감 중간($M=110.99$; $SD=9.71$), 자신감 낮음($M=103.20$; $SD=10.49$)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musical ability

	High	Middle	Low	Total
Mean	120.20	110.99	103.20	107.79
SD	12.33	9.71	10.49	11.57
N	20	123	99	242

다음의 <Table 8>은 음악교사들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높음, 중간, 낮음)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각 집단별 평균차

이의 F값이 31.21,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 수준 .01에서 각 학년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2, 239) = 31.21, p < .01$).

<Table 8> A one-way ANOVA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musical ability

	SS	df	Mean SS	F	Sig.
Between groups	6675.17	2	3337.59	31.21**	.000
Within groups	25561.08	239	106.95		
N	32236.25	241			

** $p > 0.00$

다음의 <Table 9>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 따른 교사들의 회복탄력성 점수의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9> A Scheffe (Post Hoc Test) of teach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ce in musical ability

Level of Confidence (teaching)	Mean Difference	Std. Error	Sig.
high vs middle	-9.22	2.53	.002
high vs low	-16.99	2.49	.000
middle vs low	-7.77	1.40	.000

검사 결과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 점수가 높은 그룹과 중간그룹의 평균 차는 -9.22이고 유의확률은 .002이며, 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평균 차는 -16.99, 유의확률은 .000이고, 점수가 중간인 그룹과 낮은 그룹의 평균 차는 -7.7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모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을 대상($n=242$)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회복탄력성에 얼마나 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22년도 교육통계서비스(KESS) 유·초·

중·고등학교 급별 개황 통계 자료를 토대로 층화군집표집을 실시한 후,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단순무선표집을 실시하여 총 360개의 중·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42명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사회복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교사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사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사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악적 능력과 교사능력 간 상관계수가 .629, 교사 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 간 상관계수는 .597, 그리고 음악적 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 간 상관계수는 .492로 세 개의 요인 모두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수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음악적 능력도 뛰어나며, 음악적 능력과 교수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회복탄력성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둘째, 음악교사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음악가 또는 교육자)에 따른 교사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을 교사로 인식하는 그룹과 음악가로 인식하는 그룹 간 유의수준 .05에서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스스로 교육자로 정체성을 가지는 교사가 음악가 정체성을 가지는 교사보다 회복탄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교사가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교직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교사회복탄력성 점수도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점수와 동일하게 높음, 중간, 낮음 순으로 나와 교수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능력에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회복탄력성도 좋은 것으로 교수능력을 높이는 것이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교사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사의 회복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교사의 교수능력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회복탄력성 점수도 음악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점수와 동일하게 높음, 중간, 낮음 순으로 나와 음악적 능력과 교사회복탄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적 능력에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회복탄력성도 좋아진다는 것으로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음악적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악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적응

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자신의 교수능력과 음악적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음악교사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ustin, J. R., Isbell, D. S., & Russell, J. A. (2012). A multi-institution exploration of secondary socialization and occupational identity among undergraduate music majors. *Psychology of Music*, 40(1), 66-83.
- Ballantyne, J. (2007). Documenting praxis shock in early-career Australian music teachers: The impact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5(3), 181-191.
- Beijaard, D., Verloop, N., & Vermunt, J. D. (2000). Teach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An exploratory study from a personal knowledge perspecti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7), 747-764.
- Beltman, S., Mansfield, C., & Price, A. (2011). Thriving not just surviving: A review of research on teacher resilience. *Educational Research Review*, 6(3), 185-207.
- Bennett, D. E. (2008). *Understanding the classical music profession: The past, the present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 Bentley, A. (1966). *Measures of musical abilities*. New York: October House.
- Bobek, B. L. (2002). Teacher resiliency: A key to career longevity. *The Clearing House*, 75(4), 202-205.
- Brewer, W. (2009). Conceptions of effective teaching and role-identity development among preservice music educators. DMA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 Brodsky, W. (2006). In the wings of British orchestras: A multi-episode interview study among symphony players. *Journal of Occupation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79(4), 673-690.
- Brunetti, G. J. (2006). Resilience under fire: Perspectives on the work of experienced, inner city high school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7), 812-825.
- Carrillo, C., Baguley, M., & Vilar, M. (2015).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identity on

- teaching practice: experiences of four music edu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4), 451-462.
- Choi, M. Y. (2012).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usic teacher 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339-368.
- Choo, S. H., & Choi, J. H. (2018). Analysis of career choice and preparation behavior of instrumental major in Korean universities.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2), 197-219.
- Day, C. (2008). Committed for life? variations in teachers' work, lives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9(3), 243-260.
- Fokkens-Bruinsma, M., & Canrinus, E. T. (2012). Adaptive and maladaptive motives for becoming a teacher.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Pedagogy*, 38(1), 3-19.
- Gordon, E. (1995). *Manual of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GIA Publications.
- Gu, Q., & Li, Q. (2013). Sustaining resilience in times of change: Stories from Chinese teachers.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3), 288-303.
- Hallam, S. (2010). 21st century conceptions of musical ability. *Psychology of Music*, 38(3), 308-330.
- _____ (2011). *Music psychology in education*. Seoul: Sigma Press.
- Howard, S., & Johnson, B. (2004). Resilient teachers: Resisting stress and burnou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7(4), 399-420.
- Juchniewkz, J.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intelligence on effective music teaching.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8(3), 276-293.
- Jang, Y. S. (2022. July 25). 6 out of 10 teachers "students experience problem behaviors such as profanity every day". *The Joong Ang*. Retrieved February 24, 2023,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518#home>
- Jung, H. H., & Choi, J. H. (2013).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161-183.
- _____ (2014). Career choice and curriculum applicability between music and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9, 161-174.
- Kangas-Dick, K., & O'Shaughnessy, E. (2020). Interventions that promote resilience among teacher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chool & Educational Psychology*, 8(2), 131-146.

- Kim, J. H. (2019). *Resilience* (Vol. 2). Goyang: Wisdom House.
- Kim, J. H., Byun, S. Y., & Jon, J. E. (2020). Who will be likely to leave the teaching profession? predictors of middle school teachers' turnover intentions in south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30(4), 89-112.
- Kim, M. S., Jang, K. J., Kim, Y. M., Choi, J. H., Cho, D. H., Bea, S. Y., Yoon, K. K., & Park, Y. J. (2022).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1). Educational officials act. Retrieved February 24, 2023, from <http://www.law.go.kr>
- Mansfield, C. F., Beltman, S., Broadley, T., & Weatherby-Fell, N. (2016). Building resilience in teacher education: An evidenced informed framework.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54, 77-87.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Pherson, G. E., & Renwick, J. M.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self-regulation in children's musical practice. *Music Education Research*, 3(2), 169-186.
- Nielsen, S. G., & Westby, I. A. (2012). Understanding the music teacher as a professional and as a competency nomad. *Educating Music Teachers in the New Millennium*, 7, 141-154.
- Oswald, M., Johnson, B., & Howard, S. (2003). Quantifying and evaluating resilience-promoting factors. *Research in Education*, 70(1), 50-64.
- Pretsch, J., Flunger, B., & Schmitt, M. (2012). Resilience predicts well-being in teachers, but not in non-teaching employee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5(3), 321-336.
-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New York: Broadway Books.
- Seashore, C. E. (1915). The measurement of musical talent. *The Musical Quarterly*, 1(1), 129-148.
- Shin, J. H., & Lee, S. J. (2016). A study of perception on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s' effects on pre-service music teachers' teaching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2), 169-186.
- Sh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Son, H. J. (2020). A study on (prospective and in-service)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media that negative representation of teache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9(3),

305-318.

Tugade, M. M., Fredrickson, B. L., & Feldman, B. L.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6), 1161-1190.